

커뮤니티 댄스 사례에 나타난 예술치유 효과 분석

한석진* · 김현정** · 정윤경***

I. 서론	IV. 논의 및 결론
II. 커뮤니티 댄스의 예술치유 특성	참고문헌
III. 춤추는 여자들의 <당신은 지금 바비레파에 살고 있군요>의 예술치유 효과	Abstract

I. 서론

최근 9여 년간 국내에서 ‘커뮤니티 댄스’가 무용 워크숍, 공연, 연구, 심포지엄 현장 곳곳에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예전부터 개인이나 집단, 지역공동체의 참여와 소통, 통합과 정체성 구축을 위한 다양한 춤이 존재해 왔고,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 일반인들을 위한 무용 교육과 공연, 워크숍 등이 있었지만, ‘커뮤니티 댄스’란 특정 용어의 사용은 “2011년을 기점으로 보편화되기 시작”했다.¹⁾ 이러한 커뮤니티 댄스의 급격한 확산에 대해 무용인들은 자부심과 긍지, 격려와 지지를 드러내고 있다. 누구나 춤 출 수 있게 하려는 공공 정책과 지원의 결과로 간주하거나,²⁾ 현재 무용계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로 간주하기도 한다. 본 연구자들은 이러한 국내 무용계의 흐름과 변화를 지켜보면서, 그리고 관련 행사들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춤추는 여자들의 <당신은 지금 바비레파에 살고 있군요>에 나타난 예술치유 효과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 작품은 2012년에 초연된 이후 2019년 현재까지 서울, 광주, 무안, 순천, 인제, 인천, 제주, 청주, 춘천 등의 지역에서 총 42회 공연되었고, 약 3,000여 명 이상의 관객이 참석했다.³⁾ 이러한 공연 연혁은 수많은 관객을 확보하고 장기 공연에 성공한 무용 공연으로, 무용계에서 보기 드문

* 제1저자,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강사

** 교신저자, 충남대학교 무용학과 부교수, arthju@gnu.ac.kr

*** 공동저자,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일반연구원

1) 최해리(2015), 한국 커뮤니티 댄스의 근원, 흐름, 확장, 『무용역사기록학회지』 36, p.60.

2) 최경희(2013), 커뮤니티 아트로서의 무용의 진화: 개념 및 다원화된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4(2), pp.68-69.

3) 장은정(2019년 1월 15일), 안무자와의 이메일 인터뷰: 공연기획 MCT(2018년 3월 29일), 2018 당신은 지금 바비레파에 살고 있군요, <<http://mctdance.co.kr/221240128638>, 2019. 1. 16.>.

사례로 평가된다. 비평가들은 “탈장르적 연기”와 “공연예술의 실용적 가치”,⁴⁾ “관객 참여와 치유”⁵⁾를 언급하면서 그녀의 작품이 예술적 완성도와 전문성은 다소 미흡하지만 대중적 접근과 수많은 관객 참여는 긍정적이라고 말한다.⁶⁾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커뮤니티 댄스의 개념과 영역 및 역할 논의⁷⁾, 철학 및 미학적 접근⁸⁾, 교육학적 접근⁹⁾, 실천 현황과 유형 분석¹⁰⁾, 문제점 진단과 미래 방향 모색¹¹⁾, 문화유산과 지역민 이해¹²⁾, 대상별 프로그램 개발 연구¹³⁾가 대부분이다. 2010년대부터 시작된 이러한 연구들은 커뮤니티 댄스에 대한 일부 오해와 논란, 시행착오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 무용인들의 작업을 성찰할 수 있는 담론을 형성해 왔다. 그러나 그녀의 작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일반인을 위한 무용 교육과 치유 사례,¹⁴⁾ 또는 예술가 주도적인 커뮤니티 댄스 사례¹⁵⁾로만 간단히 다루고 있다. 기존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작품 속 어떤 측면들이 이른바 예술치유 효과로 연계되었는지를 탐구할 것이다. 기존 연구들은 커뮤니티 댄스의 특성 중 하나로서 치유 특성을 개괄적으로 논의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 이론적 근거들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관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함으로써 그러한 치유 특성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확보하고 이를 예술심리치료 이론과 연계시켜 예술치유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커뮤니티 댄스를 이해하는 한 방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실황 공연 및 동영상 관람, 팸플릿과 비평문 분석, 안무가와의 인터뷰, 관객 대상의 설문 조사 및 통계 분석, 의미 도출이다. II장에서는 노환홍¹⁶⁾, 이모영¹⁷⁾, 강경선¹⁸⁾의 논의에

-
- 4) 문애령(2013), ‘춤추는 여자들’의 <당신은 지금 바비레파에 살고 있군요>, 『월간 몸』 9월호, p.36.
 5) 심정민(2013, 1, 2.), 정화와 치유의 의식으로서의 춤, 『심정민의 무용비평 무용평론 카페』, <https://cafe.naver.com/21critic, 2019, 1, 25.>.
 6) 문애령(2013), p.36; 심정민(2013).
 7) 김채현(2014), 『커뮤니티 댄스와 춤 예술의 관계 고찰』(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집); 이찬주(2013), 커뮤니티 댄스의 가치와 창작활동의 역할, 『우리춤과 과학기술』 23(4), pp.95-122.
 8) 황정옥(2014), 생태주의 윤리식과 커뮤니티 댄스 사회 참여성 관계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5(3), pp.1-16; 김재리(2014), 무용의 공공성: 국내 커뮤니티 댄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무용기록학회지』 32, pp.21-50.
 9) 주형철, 김지영(2015), 커뮤니티 댄스 예술강사의 교육서비스 질과 가치, 재참여의도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54(1), pp.413-426; 황정옥(2012), 커뮤니티 댄스의 문화예술교육적 실천 전략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3(2), pp.51-69; 황정옥(2013a), 커뮤니티 댄스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실천적 의미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4(1), pp.55-71; 황정옥(2013b), 거주지 문화 공유를 위한 커뮤니티 댄스 기능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4(2), pp.85-99; 한혜리(2012), 대학 무용교육과 커뮤니티 서비스학습의 결합 모형 연구 - 대학 커뮤니티 댄스 교육의 학습 설계 기준,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3(2), pp.1-18; 한혜리(2014a), 커뮤니티 댄스에서 참여 무용의 복합성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5(1), pp.61-76; 한혜리(2014b), 생태환경 사회 커뮤니티 댄스에서 공동체와 전인교육의 의미,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5(4), pp.1-16.
 10) 박소영, 안병주(2014), 커뮤니티 댄스의 유형별 동향 분석으로 바라본 의미 고찰, 『한국체육과학회지』 23(6), pp.1055-1064; 최경희(2013), pp.68-69.
 11) 김명희(2016), 커뮤니티 댄스의 적용 사례와 활성화 방안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58(1), pp.23-37; 문영(2013), 커뮤니티 댄스의 진단과 조망, 『대학무용학회논문집』 70(6), pp.75-97; 최혜리(2015), p.60.
 12) 김유진(2013), 진해 문화 재설정 커뮤니티 댄스 기획 - 진해 “꽃비 내리는 마을 공동체” 근대 유적지 project, 『한국무용교육학회지』 42(2), pp.101-119; 황정옥(2013a), pp.55-71.
 13) 김영미, 홍혜전(2013), 진지한 여가로서 성인여성의 커뮤니티 댄스 공연 체험의 의미, 『무용역사기록학』 29, pp.43-61; 김미령, 노경희(2012), 생명계한 선교 환우 대상 커뮤니티 댄스 기획 사례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3(2), pp.87-103; 김옥희(2013), 신노년층의 창의적 사회참여를 위한 커뮤니티 댄스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4(2), pp.121-136; 김혜민 외(2014), 커뮤니티 댄스 프로그램이 지적장애인의 사회적 적응행동 및 정서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2(1), pp.39-53.
 14) 김재리(2014), p.32.
 15) 박소영, 안병주(2014), p.1062.
 16) 노환홍(2008), 자아 경험과 예술치료, 『부히너와 현대문화』 30, p.359.

근거해 예술 활동에서 비롯된 미적 체험의 치료적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박미리¹⁹⁾, 양정무 외²⁰⁾, 정여주²¹⁾의 논의에 근거해 예술치유의 개념과 특성을 파악하고, 치유를 목적으로 기획, 공연된 커뮤니티 댄스의 주요 사례를 고찰할 것이다. III장에서는 2018년 11월 커뮤니티 댄스 공연에 참석한 관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할 것이다. 무용에 대한 이해도와 정신의학자 어빈 D. 알롬(Irvin D. Yalom) 논의에 근거한 예술치유 효과를 연령별, 직업별로 분석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예술치유와 예술치료란 용어를 임상전문 치료사의 개입 유무에 따라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본 연구는 예술 그 자체가 갖는 특성상 참여자의 배경과 특성, 공연 환경에 따라 치유 또는 치료 효과가 있음을 논의하고 커뮤니티 댄스의 미래 방향과 과제를 제안할 것이다.

II. 커뮤니티 댄스의 예술치유 특성

1. 커뮤니티 댄스의 예술치유 특성

국내에서 예술이 지닌 치유 효과가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상 정부의 문화예술정책 흐름과 맞닿아 있다. 2005년 설립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법적·조직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면서 소외계층 대상의 다양한 문화예술치유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고, 2010년 이후에는 지역 문화재단 및 기업에서도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예술치유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커뮤니티 댄스의 붐 현상은 이런 맥락에서도 이해될 수 있다.

‘예술은 삶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볼 때, 예술은 근본적으로 공동체가 공유하는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예술은 참여자들로부터 자가 치유력을 이끌어내 심신의 안정과 회복에 기여한다. 특히, 커뮤니티 예술의 경우, 관객은 완성된 작품을 단지 관람하는 것에서 벗어나 예술에 참여하고 실천하는 형태를 취한다. 커뮤니티 예술은 삶 현장에서의 개인, 집단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참여자 개인을 현실을 성찰하고 의미를 재구성하는 주체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커뮤니티 댄스는 “공동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일정한 전문성을 활용하는 사회적 춤 활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²²⁾ 여러 계층의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 댄스는 전문가가 지닌 능력을 활용하여 참가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내고 이 과정 속에서 타자와의 소통, 개인의 주체화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커뮤니티 댄스의 예술치유 특성은 예술심리치료 분야에서 “치료의 매개인(媒介因)으로 간주”되는 “미적 체험(aesthetic experience)”과 연결될 수 있다.²³⁾ 일반적으로 ‘미적 체험’이란 예술 창작, 감상 등과 같은 예술 활동에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경험을 말한다. 각 학문 분야에서는 강조하는 미적 체험을 살펴

17) 이모영(2010), 예술심리치료에서의 미적체험의 치료적 차원에 대한 고찰, 『예술심리치료연구』 6(3), pp.81-82.

18) 강경선(2015), 미적 체험의 치료적 함의, 『예술심리치료연구』 11(4), p.54.

19) 박미리(2012), 『연극치료의 이해 - 수용과 전망』(서울: 한국예술연구소 심포지엄 자료집), p.8.

20) 양정무 외(2016), 『2015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성과 및 발전방안 연구』(세종: 문화체육관광부).

21) 정여주(2016), 예술치유 패러다임을 위한 지원정책의 역할과 전망 - 미술치유를 중심으로, 『한국예술연구』 14, pp.8-9.

22) 김재현(2011. 10. 4.), 한국에서의 커뮤니티 댄스의 의미; 김윤정(2011. 10. 18.), SPAC 2011이 말하는 “새로운 몸의 화두, 커뮤니티 댄스”(『아르떼365』 <<http://www.art365.kr/?p=4550>, 2019. 2. 1.) 재인용).

23) 이모영(2010), pp.81-82.

보면, 생물학에서는 “쾌감회로의 작동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를 뜻하며, 철학에서는 “미적 대상을 통해 경험한 총체적인 경험으로 일상적인 경험과 다른 현상”을 말하고, 심리학에서는 “자의식을 잃고 미적 대상과 일치되는 경험으로 절정 체험, 또는 흐름(flow)”라고 한다.²⁴⁾ 예술심리치료 연구자들은 미적 체험에서 비롯되는 치료적 의미를 지속적으로 논의해 오고 있다. 미적 체험에서 노환홍은 “자아의 경험과 성찰”을 강조하고 있고,²⁵⁾ 이모영은 “표현과 소통”, “현실과 상상의 중간지대인 놀이의 공간”, “의미 발견과 재구성”을 강조하고 있으며,²⁶⁾ 강경선은 “감정의 행동 표현 욕망”, “자기 표현의 특별화”, “자기 가치의 특별화”의 결과로 논의하고 있다.²⁷⁾ 즉, 참여자는 예술 활동이 이뤄지는 현실의 공간에서, 작품 속 상상의 공간에서, 일종의 놀이와 같은 특별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자아를 성찰하게 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스스로 발견해 나간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미적 체험의 치료적 의미들이 임상전문 치료사가 개입하지 않아도 커뮤니티 댄스와 같은 예술 활동의 결과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논의할 것이다.

‘예술치유(art healing)’는 ‘예술치료(art therapy)’란 용어와 구별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에서 예술치유란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은 치료는 곧 의료행위라는 전통적 인식에 기반하고 있으며, 예술치유란 용어를 별도로 사용함으로써 예술치유를 의료영역 밖에 놓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정여주는 말한다.²⁸⁾ 박미리는 예술치유는 감성적 측면을 다루고 자가 치유력을 강조하고 있다면, 예술치료는 의료적 치료에 가까우며 예방에서 더 나아가 처치 범주까지 포함한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예술치유는 대상군이 구체적으로 분류되거나 접근 및 처치방법이 제시되지 않으나, 예술과 의학이 결합된 예술치료에서는 “진단, 평가, 검증”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²⁹⁾ 양정무 외에 따르면, 예술치유는 참여자의 질병 유무에 관계없이 예술가의 주도로 예술적 활동을 통해 전인적 상태로의 회복을 도모하는 활동이다. 예술치료는 예술치유 활동에 의학적 목적과 과학적 성격이 추가된 것으로서 전문 임상 경력을 가진 예술치료사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다.³⁰⁾

양정무 외가 제시한 예술치유와 예술치료의 개념 정의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있기도 하지만³¹⁾, 예술치료와 예술치유의 경계를 나누는 것이 애매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³²⁾ 본 연구자들은 예술치료라는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예술치유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그 대상, 목적, 방법에 있어서 차별화가 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커뮤니티 댄스를 통한 정서적, 심리적 건강 회복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정서적,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개선, 회복시켜 전인적 성장에 이르게 하는 예술의 일반적 효과를 설명하는 예술치유의 개념을 주로 사용하였다.

24) 강경선(2015), p.54.

25) 노환홍(2008), p.359.

26) 이모영(2010), p.101.

27) 강경선(2015), pp.58-60.

28) 정여주(2016), pp.8-9.

29) 박미리(2012), p.8.

30) 양정무 외(2016), p.27.

31) 정여주(2016, pp.10-12)에 따르면, 양정무 외는 예술치료를 개념화할 때 의학적 활동을 강조하여 일반 의료행위와의 차별점을 간과하고 있으며 예술치료 대상을 비정상에 한정한다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한다.

32) 정여주, 정현주, 김나영(2016),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예술치유시범사업 평가 및 발전방안, 『미술교육논총』 21(1), p.268.

2. 치유 차원의 커뮤니티 댄스와 주요 사례

커뮤니티 댄스는 목적에 따라 ‘교육’, ‘치유’, ‘지역 관계’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교육 차원의 커뮤니티 댄스는 자아정체성이 형성되는 영유아 시기부터 청소년기까지 다양한 교육과 참여 기회를 통해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올바른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치유 차원의 커뮤니티 댄스는 성인, 노인, 소외계층, 사회일탈자를 대상으로 몸과 정신의 총체적 회복을, 지역 관계 차원의 커뮤니티 댄스는 공동체 활성화와 사회적 통합을 목적으로 한다.³³⁾

그 중 치유 차원의 커뮤니티 댄스는 신체적, 심리적 장애가 있는 특수한 대상자를 위한 것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개인주의, 핵가족화, 물질만능주의, 인간소외, 외모지상주의 등으로 인해 사회구성원들이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이 증가하면서 치유 차원의 커뮤니티 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는 참여자 개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뿐만 아니라 사회·심리적 경험을 통해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 및 사회적 향상을 가져오고 있다.

2010년 이후부터 치유 차원의 다양한 커뮤니티 댄스가 실행되었는데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인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춤추는 꽃 중년 프로젝트>(2012)는 6개월간의 워크숍 및 예술입문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충무아트홀에서 진행되었다. 그 결과물로서 프로젝트 제작과정 영상을 전시하고 공연을 보여주는 동시에 관객이 참여하는 체험 공연이 펼쳐졌다. 안무가 김윤진이 실행가로 참여한 이 프로그램은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50-60대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는데, 일상생활에서 잃어버린 본연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자 했다. 안은미의 <아저씨를 위한 무책임한 댄스>(2013)는 40-60대 아저씨를 대상으로 제작되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약 20여명의 중년 남성들은 막춤을 추면서 사회,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삶의 고충 등을 떨쳐 버리고 자유와 해방감을 추구한다. 서울발레시어터의 <홈리스 발레교실>(2011)은 노숙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였다. 발레의 기본 움직임과 마음을 통해 노숙자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 인지하게끔 하였으며, 경직되어 있던 몸을 이완시키면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 프로젝트는 참여자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킴으로써 삶에 임하는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 내었고 사회 내 구성원으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가 치유 차원의 커뮤니티 댄스 사례로 선정한 춤추는 여자들의 <당신은 지금 바비레파에 살고 있군요>는 2011년 <당신은 지금 봄내(춘천)에 살고 있군요>에서 시작된 작품이다. 중년층 여성 안무가와 배우로 구성된 프로젝트 기반 단체인 ‘춤추는 여자들’은 춘천 지역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9회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 완성된 <당신은 지금 봄내(춘천)에 살고 있군요>를 무대에 올렸다. 공연에서 참가자들은 중년 여성으로서 느끼는 아픔, 권태, 외로움의 감정을 공유하고 노래, 시, 춤을 함께 즐겼다. 이 프로젝트는 이후 시민참여형 예술프로젝트 <당신은 지금 바비레파에 살고 있군요>로 발전되었으며, 더 이상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과정을 거쳐 참여자가 직접 공연하는 형태가 아닌, 4명 내외의 전문무용수와 배우에 의해 공연되는 동안 관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재구성되었다. 이는 안무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워크숍을 실시 한 후 이후 참여자들의 준비된 공연을 무대에 올렸던 사례들과는 차이를 지닌다.

33) 김지연(2015), 커뮤니티 댄스를 통한 정체성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학위 논문, pp.28-29.

III. 춤추는 여자들의 <당신은 지금 바비레타에 살고 있군요>의 예술치유 효과

1. 작품 개요

2018년 11월 청주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공연된 <당신은 지금 바비레타에 살고 있군요>는 약 60분 동안 공연자 5명이 관객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진행되는 관객참여형 작품이다.³⁴⁾ 작품에 대한 사회자의 간략한 소개와 함께 등장한 공연자들은 관객과 풍선을 주고받고 노래를 부르며 공연을 시작한다. 공연 시작부터 관객들은 작품을 앉아서 관극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움직임으로 적극 반응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된다. 나비, 꽃, 나무 등의 무대 장치는 편히 쉬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일종의 정원 공간을 상징하고 있다. 이 작품은 3개 부분으로 즉, “이야기 → 떠나보기”, “춤 → 나를 만나기 위해 떠나는 춤 여행”, “함께 → 관계 맺기 토크 + 춤 = 워크숍 형식의 압축”으로 구성되며,³⁵⁾ 작품은 이러한 소재목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바비레타(бабье лето)’란 용어는 늦은 여름과 이른 가을 사이의 계절을 일컫는 러시아어이며, 비유적으로는 매력적인 중년 여성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한다. 본 작품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하여 관객들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표현하고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으며 공유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재인식하고 존재 가치를 재발견하게 한다.

1부 “이야기”에서는 “달이 차오른다, 가자”란 한국 대중가요에 맞춰 공연자들과 관객들이 손뼉 치며 춤추고, 행복했던 순간들에 대해 말하고, “여행을 떠나요”, “어쩌다 마주친 그대” 등 노래를 부르면서 율동적인 움직임들을 만들어 내고 서로를 응원한다. 연기자 1명은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이란 시를 낭송하고 노래 부르고, 관객들은 이를 따라 합창한다. 또한 공연자들은 각자 자신들의 고민거리, 경험담 등을 들려주는데 이러한 내용은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관객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고 그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 내어 반응하게 한다. 2부 “춤”에서는 공연자들의 전문적인 춤 공연이 펼쳐지고, 이후 일부 관객들은 공연자들의 권유에 이끌려 무대 위에 올라가 즉흥적으로 춤을 춘다. 대중가요, 볼룸댄스 음악에 맞춰 양손을 마주 잡거나 그룹으로 원을 그리면서 춤춘다. 무대 위에서 뿐만 아니라 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 역시 옆 좌석에 앉아있는 낯선 이와 인사하고 악수하며 관계를 맺게 된다. 3부 “함께”에서는 관객들 모두가 무대 위로 올라가도록 유도한 후, 리더 역할을 하는 공연자의 안내에 따라 공연자들과 관객들은 간단한 순서의 움직임을 배우고 다함께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이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관객은 다른 관객들과 마주하고 인사하고 이야기하게 된다. 잠시 후 움직임을 멈추고 바닥에 누워 자신의 몸과 주변을 느끼고 서로를 격려하면 작품은 끝난다.

34) 본 장에서는 2018년 11월 28일 오후 7시 청주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공연된 작품에 주목해 논의하였다. 이 공연은 충북무용협회가 주최, 주관하였으며, 충북문화재단과 충북예총이 후원하였다. <당신은 지금 바비레타에 살고 있군요>는 2012년 초연 이후 수차례의 공연을 거쳐 수정, 보완되었고, 작품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공연 장소, 주요 관객의 특성, 극장, 기획사의 요청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되고 있다고 한다(안무자와의 인터뷰, 2018년 11월 18일 오후 2시 이디야홍대학원가점).

35) 한국무용협회 충청북도지회(2018년 11월 28일), 2018년 충북 춤작가전: 감성치유프로젝트 공연프로그램.

2. 설문조사 방법 및 절차

가. 연구대상

커뮤니티 댄스의 예술치유 효과를 탐색하기 위해 당시 관람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 113명이 응답하였는데, 불성실한 응답 15부를 제외한 98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관객들의 특징은 <표 1>과 같다. 여성 관객이 전체 관객의 약 3/4 이상을 차지할 만큼 남성 관객보다 많았다. 관객의 연령대는 중년층, 학생층과 장년층, 청년층 순으로 많았으며, 40대 이상 관객이 절반이상(56.1%)을 차지하였다. 직업의 경우, 예술인, 학생, 직장인, 전업주부, 기타 순이며, 무용경험이 있는 자들이 무용경험이 없는 자들보다는 많았다.

<표 1> 설문에 참여한 관객들의 특성

구 분		인원(명)	비율(%)
성 별	남	23	23.5
	여	75	76.5
연 령 대	학생층(10대미만~10대)	24	24.5
	청년층(20대~30대)	19	19.4
	중년층(40대~50대)	30	30.6
	장년층(60대 이상)	25	25.5
직 업	학 생	27	27.6
	직 장 인	22	22.4
	예 술 인	32	32.7
	전업주부	12	12.2
	기 타	5	5.1
무용경험	있 음	64	65.3
	없 음	34	34.7
합 계		98명	100%

나. 연구도구

커뮤니티 댄스의 예술치유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위해, 무용 경험과 본 공연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10개 문항과 어빈 D. 알롬이 논의한 치료적 요인 1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문 문항의 구체적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주제별 설문 문항의 구체적 내용

구 분	내 용	문항 수
무용 및 공연 관련 문항	장르별 무용 경험, 무용관람 횟수, 공연정보 획득 경로, 관람동기, 공연전 기대요인, 공연에 대한 만족도와 그 이유, 추천 의향	10
치유 효과 관련 문항	(공연의) 희망적 고취, 보편성, 정보전달, 이타심, 가족 문제의 교정적 재현, 사회화 기술의 발달, 모방행동, 대인관계 학습, 집단 응집력, 정화, 실존적 요인	11

알롬은 자신의 임상 경험에 근거해 집단상담에서 구성원들의 행동변화에 작용하는 요인으로 11개의 ‘치료적 요인(therapeutic factors)’을 ‘희망적 고취’, ‘보편성’, ‘정보전달’, ‘이타심’, ‘가족 문제의 교정적 재현’, ‘사회화 기술의 발달’, ‘모방행동’, ‘대인관계 학습’, ‘집단 응집력’, ‘정화’, ‘실존적 요인’으로 제시하였다.³⁶⁾ 알롬의 치료적 요인 논의에 기초한 설문지의 구성은 1점 ‘매우 그렇다’, 2점 ‘그렇다’, 3점 ‘보통이다’, 4점 ‘그렇지 않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있다. 알롬의 치료적 요인을 연극치료 분야에 적용하고, 문항을 구성해 치유효과와 도구 타당화를 검증한 선행연구³⁷⁾를 참고하여, 관객참여형 공연 맥락에 맞게 그 내용을 <표 3>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표 3> 알롬의 치료적 요인에 근거한 연구도구

문항	알롬의 치료적 요인	설문 내용
1	희망적 고취	이 공연은 내 고민,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2	보편성	공연은 스트레스, 고민, 문제가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슷하게 있음을 알게 해 주었다
3	정보전달	내 고민,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조언과 정보를 얻었다
4	이타심	이 공연은 서로 위로하고 지지하였다. 나 또한 타인을 도울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5	가족 문제의 교정적 재현	가족 내 갈등/문제가 생각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얻었다.
6	사회화 기술의 발달	대인관계에 필요한 사회화 기술을 연습할 수 있었다.
7	모방행동	타인을 모방하여 좋은 생각, 행동, 감정을 배울 수 있었다.
8	대인관계 학습	나의 대인관계는 어떠했는지, 앞으로 어떤 대인관계를 새롭게 형성하고 싶은지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9	집단 응집력	나의 모습, 존재, 가치가 있는 그대로 인정받는 따뜻함, 편안함을 느꼈다
10	정화	자신의 억압된 감정, 정서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다.
11	실존적 요인	내 인생의 다양한 문제는 타인의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궁극적인 책임이 내게 있기에 결국 내가 직면해 해결해야 함을 알게 되었다.

다.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본 연구자들은 문헌연구, 토론, 상호교차 검토를 거쳐 설문문항의 적절성과 타당도,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무용학교수 1인, 무용학박사 1인이 커뮤니티댄스 실천가 2인과 함께 전문가회의를 실시하였으며, 무용연구자 1인과 교육측정평가전문가 1인과 함께 문항 및 분석에 대한 타당도 회의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및 자료 분석은 2018년 11월부터 12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관객들에게 설문지의 목적과 내용을 이해시킨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개인당 약 20분이 소요되었다. 커뮤니티 댄스의 예술치유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통해 전산 처리하였다. 문항의 평균, 표준편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36) 어빈 D. 알롬(2008), 『최신 집단정신치료의 이론과 실제 [제5판]』, 최해림, 장성숙(역)(서울: 하나의학사, 1994), pp.20-37.

37) 김은혜(2009), 사이코드라마가 주는 자기개방 및 상담의 효과 분석,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12(2), pp.41-54; 강성혜(2011), 즉흥기법을 활용한 연극치료 작업 과정 및 효과 분석, 『연극예술치료연구』 1, pp.1-39; 윤우상(2011), 임원준인 알코올중독자를 위한 동기강화 역할극 프로그램 모형 개발,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14(2), pp.111-128.

3. 설문조사 결과 분석

가. 무용 및 공연 관련 요인 조사 결과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공연을 관람한 관객 중 65.3%(64명)은 무용을 배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무용경험’은 무용전공자를 위한 수업 이외에도 취미,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무용수업 등도 포함한다. 65.3%의 관객이 년 3회 이상의 공연을 관람한다는 점은 무용경험(참여도)과 무용관람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³⁸⁾와 맥락을 같이한다.

공연에 대한 정보는 ‘지인의 추천 또는 출연’을 계기로 알게 되었다는 응답(62명, 63.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관람 동기는 ‘무용에 대한 관심’(57명, 40.7%)과 ‘지인의 권유’(30명, 21.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관객은 본 공연에서 ‘공감’(54명, 26%)을 가장 기대하고 있었으며, ‘아름다움’(21.6%), ‘재미’(20.2%), ‘감동’(19.7%)도 뒤를 이어 기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4〉 무용 및 공연 관련 요인 조사결과

구 분		인원(명)	비율(%)	합 계
장르별 무용경험 (중복응답 가능)	한국무용	43	36.7	117명 (100%)
	발 레	31	26.5	
	현대무용	32	27.4	
	실용무용	3	2.6	
	기 타	8	6.8	
연 공연관람횟수	1년 내 없음	10	10.2	98명 (100%)
	1-2회	24	24.5	
	3-5회	33	33.7	
	6-9회	17	17.3	
	10회 이상	14	14.3	
공연정보 획득경로	신문 및 잡지기사	3	3.1	98명 (100%)
	지인의 추천 또는 출연	62	63.2	
	기관 홈페이지	8	8.2	
	S N S	8	8.2	
	포스터 및 인쇄물	7	7.1	
	기 타	10	10.2	
관람동기 (중복응답 가능)	예술 및 무용에 대한 관심	57	40.7	140명 (100%)
	문화예술 향유	28	20.2	
	지인의 권유	30	21.4	
	취미활동	17	12.1	
	연구목적	4	2.9	
	기 타	4	2.9	

38) 김혜정, 정은주(2010), 일반인의 무용공연 관람동기가 정서경험과 무용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과학회지』 21, p.12.

구 분		인원(명)	비율(%)	합 계
공연 전 기대요인 (중복응답 가능)	재 미	42	20.2	208명 (100%)
	아름다움	45	21.6	
	공 감	54	26.0	
	감 동	41	19.7	
	관객참여	25	12.0	
	기 타	1	0.5	
공연에 대한 만족도	예	86	87.8	98명 (100%)
	아 니 오	12	12.2	
공연추천 의향	예	88	89.8	
	아 니 오	10	10.2	

본 공연에 만족하였다는 관객을 대상으로 그 이유와 흥미로웠던 점에 대해 개방형 설문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고 관객이 작성한 단어의 의미를 분류하고 재분석하였다. <표 5>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공연에 만족하게 된 이유로는 ‘관객참여’ 측면이(34명, 28.4%)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재미’(26명, 21.7%)가 뒤를 이어 높게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공연의 모든 측면이 만족스러웠다, ‘정보 전달’이 좋았다, ‘희망을 고취’시키는 내용이 긍정적이었다는 응답 등이 있었다. 공연에서 흥미로웠던 점의 경우, 공연의 ‘관객참여’ 형태가 가장 높게(43명, 54.3%) 나타났고, ‘예술성’ 측면이 뒤를 이어 높게(12명, 15.2%) 나타났다.

<표 5> 공연에 대한 만족 및 흥미 이유

구 분		인원(명)	비율(%)	합 계
공연이 만족스러웠던 이유	감 동	6	5.0	120명 (100%)
	관객참여	34	28.4	
	대인관계학습	3	2.5	
	보 편 성	12	10	
	예 술 성	7	5.8	
	정 화	6	5	
	재 미	26	21.7	
	집단응집력	7	5.8	
	기 타	19	15.8	
공연에서 흥미로웠던 점	공 감	4	5.1	78명 (100%)
	공연전반(관련 모든 점)	3	3.8	
	관객참여	43	54.4	
	실존적요인	10	12.7	
	예 술 성	12	15.2	
	재 미	2	2.5	
	정 화	4	5.1	
희망의고취	1	1.2		

나. 커뮤니티 댄스의 예술치유 효과 조사 결과

설문 조사 결과, <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항목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모든 문항의 값이 4.2(만족) 이상으로 치유 효과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문항 10 '자신의 억압된 감정, 정서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다'(4.45)와 문항 2 '공연은 스트레스, 고민, 문제가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슷하게 있음을 알게 해 주었다'(4.42)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보편성'과 '정화'라는 측면에서 특히 치유 효과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연령, 직업에 따른 공연의 예술치유 효과를 분석한 결과, 연령별·직업별 모두 학생층이(각 4.58, 4.47) 가장 높은 효과를 보여 주었다. 구체적 연령대를 살펴보면, 학생층에서 가장 높은 효과(4.58)가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청년층(4.36), 장년층(4.34)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학생군(4.47)의 뒤를 이어 직장인(4.30), 예술인(4.29), 주부(4.27)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직업별 분석 결과 군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모든 문항의 값이 4.0(만족)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관객들이 공연에 대체로 만족하였고, 예술치유 효과를 경험했음을 반영한다.

<표 6> 연령 및 직업에 따른 커뮤니티 댄스의 예술치유 효과 결과

구 분	문 항											합계	
	문항1	문항2	문항3	문항4	문항5	문항6	문항7	문항8	문항9	문항10	문항11		
연령 별	학생층	4.58 ±.78	4.63 ±.71	4.54 ±.72	4.54 ±.78	4.58 ±.78	4.50 ±.83	4.63 ±.65	4.67 ±.64	4.63 ±.82	4.63 ±.71	4.54 ±.78	4.58 ±.74
	청년층	3.84 ±.69	4.21 ±.63	3.89 ±.66	4.00 ±.75	4.00 ±.82	4.05 ±.71	4.00 ±.75	4.00 ±.75	4.21 ±.79	4.21 ±.79	4.11 ±.81	4.05 ±.74
	중년층	4.37 ±.67	4.40 ±.67	4.20 ±.66	4.50 ±.73	4.20 ±.71	4.21 ±.77	4.53 ±.63	4.40 ±.62	4.37 ±.67	4.43 ±.68	4.43 ±.73	4.36 ±.69
	장년층	4.38 ±.58	4.40 ±.71	4.17 ±.70	4.28 ±.68	4.13 ±.80	4.32 ±.75	4.44 ±.51	4.29 ±.75	4.48 ±.59	4.48 ±.71	4.36 ±.64	4.34 ±.67
직 업 별	학 생	4.48 ±.80	4.52 ±.75	4.41 ±.74	4.37 ±.84	4.44 ±.85	4.37 ±.84	4.52 ±.64	4.56 ±.70	4.56 ±.80	4.56 ±.75	4.41 ±.84	4.47 ±.78
	직장인	4.38 ±.66	4.27 ±.77	4.14 ±.64	4.27 ±.77	4.27 ±.63	4.32 ±.78	4.32 ±.65	4.23 ±.75	4.36 ±.66	4.36 ±.73	4.41 ±.67	4.30 ±.70
	예술인	4.09 ±.73	4.41 ±.61	4.13 ±.81	4.34 ±.79	4.19 ±.78	4.19 ±.75	4.38 ±.75	4.31 ±.69	4.41 ±.71	4.50 ±.67	4.34 ±.79	4.29 ±.74
	주 부	4.42 ±.51	4.42 ±.67	4.08 ±.51	4.42 ±.51	3.82 ±.87	4.17 ±.83	4.58 ±.51	4.27 ±.79	4.25 ±.75	4.17 ±.83	4.33 ±.65	4.27 ±.68
합 계	4.32 ±.72	4.42 ±.69	4.22 ±.71	4.36 ±.75	4.24 ±.79	4.28 ±.77	4.29 ±.66	4.36 ±.71	4.28 ±.72	4.45 ±.72	4.38 ±.74	4.37 ±.74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2012년 초연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공연과 수많은 관객 참여로 화제가 되었던 커뮤니티 댄스 <당신은 지금 바비레파에 살고 있군요>에 주목하여 예술치유 효과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먼저 공연을 관람한 관객의 인구학적 통계를 살펴볼 때 여성(76.5%)이 남성(23.5%)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중년층(30.6%)과 장년층(25.5%)이 학생층(24.5%)과 청년층(19.4%)보다 더 많았다. 이는 일반적인 무용공연 관람층이 남성과 여성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며 청년층이 월등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³⁹⁾와 상이하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당신은 지금 바비레파에 살고 있군요>의 작품이 지니는 성격을 반영한다. 이 작품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된 프로젝트였고, 워크숍 형식에서 무대공연 형식으로 바뀌었지만 작품제목에서 드러나듯, 중년 여성을 타깃으로 한다. 작품 내 공연자들의 연령층과 그들이 나누는 경험담과 생각들, 공연에 사용되는 노래와 감성들에서 이러한 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2017년에도 동일한 작품이 청주예술의전당에서 공연된 바 있으며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인해 1년 후 재공연 되었다. 공연정보 획득경로가 지인의 추천 또는 출연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63.2%)로 나타났듯이, 지난 공연 이후 입소문을 타고 중장년 여성층을 공연장으로 오게끔 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공연은 중장년층 여성이라는 정확한 타깃을 설정하여 그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어 한국 무용계에서 드물게 약 8년간 장기공연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본 공연이 관객으로부터 공감대를 얻는데 있어서 관객석에 앉아 관극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점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공연을 보기 전에 관객이 기대하는 바가 ‘공감’(26.0%), ‘아름다움’(21.6%), ‘재미’(20.2%), ‘감동’(19.7%), ‘관객참여’(12.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공연을 보고 난 후 그 기대를 충족한 이유로는 ‘관객참여’(34%)와 ‘재미’(26%)에서 높은 비율이 나타났으며, 공연에서 흥미로웠던 점에서 역시 ‘관객참여’가 54.3%로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를 보였다. 즉 관객들은 기대하지 않았던 ‘관객참여’라는 새로운 방식의 공연형식을 통해 작품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본 공연은 중년여성이라는 관객층을 타깃으로 만들어졌지만 작품의 소재나 내용에 있어서 ‘보편적’ 정서를 담아내어 모든 연령대가 작품에 대해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의미를 발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연관람을 통해 알몸의 치료적 요인인 ‘희망적 고취’, ‘보편성’, ‘정보전달’, ‘이타심’, ‘가족 문제의 교정적 재현’, ‘사회화 기술의 발달’, ‘모방행동’, ‘대인관계 학습’, ‘집단 응집력’, ‘정화’, ‘실존적 요인’ 등에서 전반적으로 치유 효과가 있었다. 특히 관객 스스로 노래를 부르거나 이야기를 하고 춤을 추는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작품의 관객참여적 특징은 자신의 억압된 감정 및 정서를 자유롭게 표현하면서(‘정화’), 그리고 작품 속에서 타인을 인지하고 관계를 맺는 과정 속에서 스트레스, 고민, 문제가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비슷한 것을 경험하고 있음을 깨달으면서(‘보편성’) 치유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II장에서 노환홍(2008), 이모영(2010), 강경선(2015)이 논의했던 미적 체험의 치료적 의미와 맞닿아 있다.

본 연구는 커뮤니티 댄스 공연을 관람하는 경험을 통해 치유 효과가 있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공연

39) 예술경영지원센터(2018), 『2017 공연예술 경기·소비동향 보고서(4분기 실적 및 '18년 1분기 전망)』(서울: 예술경영지원센터), p.35.

이 본질적으로 지니는 치유적 속성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일정 기간동안 워크숍에 참여하고 동시에 무용수로서 무대에 서는 경험이 어떻게 치료적 효과를 작동시키는지에 대한 후속연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후속 연구는 공연지향적 형식 뿐만 아니라 과정 중심의 참여적 형식으로써 커뮤니티 댄스가 지니는 치유적 효과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2010년대 나타난 한국 커뮤니티 댄스 붐 현상은 국내 무용계와 무용인들의 예술과 무용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용에 대한 안무자들의 관점이 엘리트 중심의 고급예술, 순수예술에서 대중 친화적인 창작 방식을 선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안무자 장은정이 기교 위주나 테크닉 과시의 작품보다는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었는데, 무용수들, 관객들과 함께 작업해 나가면서 춤의 긍정적 측면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면서 리허설과 공연을 위해 그런 측면들을 활용하게 되었다고 말한 것에서도 나타난다.⁴⁰⁾ 앞으로 커뮤니티 댄스에 대한 이해와 평가 방식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논의와 무용계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이다. 예술성, 전문성과 같은 기존의 평가 잣대가 아닌 커뮤니티 댄스의 개념과 특성, 가치, 역할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면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커뮤니티 댄스 붐 현상은 문화 정책과 현장에 있어서 ‘문화 민주주의’의 확산⁴¹⁾과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무용계 내부의 성찰을 거쳐 커뮤니티 댄스가 발전한 영국과 달리, 한국은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의 주도 하에 의해 단기간에 급속한 발전을 보여주었다. 무용인들은 이러한 변화하는 사회, 변화하는 예술 환경에 주목하면서 무용의 사회적, 예술적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 무용 창작/생산, 유통, 공연, 감상 방식을 다각도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40) 윤지현(2012, 7. 7.), 주목! 이 사람 - 장은정 <프로젝트 그룹 춤추는 여자들> 대표, 『Dance Post, Korea』, <<https://blog.naver.com/chumnuri2010/100161856491>, 2019, 1, 16.>.

41) 최미세(2014), 문화예술의 공적 가치와 문화 민주주의, 『독일어문학』 64, pp.395-416.

■ 참고문헌

- 어빈 D. 알롬(2008). 『최신 집단정신치료의 이론과 실제 [제5판]』. 최해림, 장성숙(역). 서울: 하나 의학사. 1994.
- 강경선(2015). 미적 체험의 치료적 함의. 『예술심리치료연구』, 11(4): 45-65.
- 강성혜(2011). 즉흥기법을 활용한 연극치료 작업 과정 및 효과 분석. 『연극예술치료연구』, 1: 1-39.
- 김명희(2016). 커뮤니티 댄스의 적용 사례와 활성화 방안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58(1): 23-37
- 김미령, 노경희(2012). 생명제한 선고 환우 대상 커뮤니티 댄스 기획 사례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3(2): 87-103.
- 김영미, 홍혜전(2013). 진지한 여가로서 성인여성의 커뮤니티 댄스 공연 체험의 의미. 『무용역사기록학』, 29: 43-61.
- 김옥희(2013). 신노년층의 창의적 사회참여를 위한 커뮤니티 댄스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4(2): 121-136.
- 김유진(2013). 진해 문화 재설정 커뮤니티 댄스 기회 - 진해 “꽃비 내리는 마을 공동체” 근대 유적지 project. 『한국무용교육학회지』, 42(2): 101-119
- 김은혜(2009). 사이코드라마가 주는 자기개방 및 상담의 효과 분석.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12(2): 41-54.
- 김재리(2014). 무용의 공공성: 국내 커뮤니티 댄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무용기록학회지』, 32: 21-50.
- 김지연(2015). 커뮤니티 댄스를 통한 정체성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학위 논문.
- 김혜정, 정은주(2010). 일반인의 무용공연 관람동기가 정서경험과 무용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과학회지』, 21: 1-14.
- 김혜민, 박진우, 이현수, 김재화(2014). 커뮤니티 댄스 프로그램이 지적장애인의 사회적 적응행동 및 정서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2(1): 39-53.
- 노환홍(2008). 자아 경험과 예술치료. 『뷔히너와 현대문학』, 30(30): 353-380.
- 문영(2013). 커뮤니티 댄스의 진단과 조망. 『대학무용학회논문집』, 70(6): 75-97.
- 박소영, 안병주(2014). 커뮤니티 댄스의 유형별 동향 분석으로 바라본 의미 고찰. 『한국체육과학회지』, 23(6): 1055-1064.
- 윤우상(2011). 입원중인 알코올중독자를 위한 동기강화 역할극 프로그램 모형 개발.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14(2): 111-128.
- 이모영(2010). 예술심리치료에서의 미적체험의 치료적 차원에 대한 고찰. 『예술심리치료연구』, 6(3): 81-104.
- 이찬주(2013). 커뮤니티 댄스의 가치와 창작활동의 역할. 『우리춤과 과학기술』, 23(4): 95-122.
- 정여주(2016). 예술치유 패러다임을 위한 지원정책의 역할과 전망 - 미술치유를 중심으로. 『한국예술연구』, 14: 5-31.
- 정여주, 정현주, 김나영(2016).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예술치유시범사업 평가 및 발전방안. 『미술교

- 육논총』, 21(1): 265-288.
- 주형철, 김지영(2015). 커뮤니티 댄스 예술강사의 교육서비스 질과 가치, 재참여의도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54(1): 413-426.
- 최경희(2013). 커뮤니티 아트로서의 무용의 진화: 개념 및 다원화된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4(2): 67-84.
- 최미세(2014). 문화예술의 공적 가치와 문화 민주주의. 『독일어문학』, 64: 395-416.
- 최해리(2015). 한국 커뮤니티 댄스의 근원, 흐름, 확장. 『무용역사기록학회지』, 36: 49-68.
- 한혜리(2012). 대학 무용교육과 커뮤니티 서비스학습의 결합 모형 연구 - 대학 커뮤니티 댄스 교육의 학습 설계 기준.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3(2): 1-18.
- _____ (2014a). 커뮤니티 댄스에서 참여 무용의 복합성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5(1): 61-76.
- _____ (2014b). 생태환경 사회 커뮤니티 댄스에서 공동체와 전인교육의 의미.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5(4): 1-16.
- 항정옥(2012). 커뮤니티 댄스의 문화예술교육적 실천 전략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3(2): 51-69.
- _____ (2013a). 커뮤니티 댄스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실천적 의미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4(1): 55-71.
- _____ (2013b). 거주지 문화 공유를 위한 커뮤니티 댄스 기능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4(2): 85-99.
- _____ (2014). 생태주의 윤리의식과 커뮤니티 댄스 사회 참여성 관계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5(3): 1-16.
- 공연기획 MCT(2018. 3. 29.). 2018 당신은 지금 바비레파에 살고 있군요. <<http://mctdance.co.kr/221240128638>, 2019. 1. 16.>.
- 김윤정(2011. 10. 18.). SPAC 2011이 말하는 “새로운 몸의 화두, 커뮤니티 댄스” 제4회 공연저널리즘서울포럼. 『아르떼365』. <<http://www.arte365.kr/?p=4550>, 2019. 2. 1.>.
- 김채현(2014). 『커뮤니티 댄스와 춤 예술의 관계 고찰』. 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집.
- 문애령(2013). ‘춤추는 여자들’의 <당신은 지금 바비레파에 살고 있군요>. 『월간 몸 9월호』.
- 박미리(2012). 『연극치료의 이해 - 수용과 전망』. 서울: 한국예술연구소 심포지엄 자료집.
- 심정민(2013. 1. 2.). 정확과 치유의 의식으로서의 춤. 『심정민의 무용비평 무용평론 카페』. <<https://cafe.naver.com/21critic>, 2019. 1. 25.>.
- 양정무, 김창환, 서우석, 박기환, 박현정, 김인설, 나희영, 정여주, 노주희, 김윤태, 김유정(2016). 『2015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성과 및 발전방안 연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경영지원센터(2018). 『2017 공연예술 경기·소비동향 보고서(4분기 실적 및 '18년 1분기 전망)』. 서울: 예술경영지원센터.
- 윤지현(2012. 7. 7.). 주목! 이 사람 - 장은정 <프로젝트 그룹 춤추는 여자들> 대표. 『Dance Post. Korea』. <<https://blog.naver.com/chumnuri2010/100161856491>, 2019. 1. 16.>.

장은정(2018. 11. 18.). 안무자와의 인터뷰, 오후 2시 이디야홍대학원가점.

_____(2019. 1. 15.). 안무자와의 이메일 인터뷰.

한국무용협회 충청북도지회(2018. 11. 28.). 2018년 충북 춤작가전: 감성치유프로젝트 공연 프로그램.

논문투고일 2019. 02. 13

심사일 2019. 02. 20

심사완료일 2019. 03. 13

An Analysis of Healing Aspects in a Community Dance

Han, SeokJin* · Kim, HyunJung** · Jeong, YunKyung***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orea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The Gifted in Arts***

This paper aimed to explore meanings of healing in *You are Living in Babiretta Now* (2018), a community dance work, which has drawn much attention from Korean dance scene since its 2012 premiere, due to its audience participation and long-run performances. Drawing on literature review, analyses of live performance and DVD, pamphlets and dance reviews, interviews with a choreographer, and audience survey and statistics, this study proved that the dance work's constitutive elements including dance, song, storytelling and audience participation had therapeutic impact on the audiences, particularly what I. D. Yalom calls 'universality' and 'catharsis'. This paper also provided theoretical bases for better understanding community dance, relating the aspects of healing in the work to therapeutic meanings in aesthetic experience.

Keywords: Community dance(커뮤니티 댄스), Healing(치유), Aesthetic experience(미적 체험), You are Living in Babiretta Now(당신은 지금 바비레타에 살고 있군요), Audience participation(관객 참여)